

금요양성 2025년 1월 24일 - 소통 1부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2022년 10월 국가형제회 총회에서,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2022-2025년의 우선 순위 과제를 성소, 소통, 관계로 정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금요 양성은 이 우선순위 목표를 검토하고 현재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는 기회를 가져보겠다. 소통이 우선 순위 두번째 과제이다.

소통: 1부

국가양성위원회장 Layna Maher, OFS 가 제공한다.

이번 주 금요 양성은 가톨릭이며 재속 프란치스칸의 관점에서 소통에 대해 살펴 본다.

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도록 불림을 받았다. 먼저 토마스 첼라노가 성 프란시스의 삶을 묘사한 모습에서 성인이 사셨던 삶을 보겠다.

[FA:ED, vol. 1, 283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초기 문헌 1권 283 토마스 첼라노의 프란치스코의 생애 174쪽](#)

그가 함께 살아 본 형제들은
그가 매일 얼마나 끊임없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입에 올렸고,
성인의 말씀이 얼마나 감미롭고 부드러웠으며,
형제들과의 이야기가 얼마나 친절과 사랑이 담겨져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 가득찬 것이 입으로 나왔고
그의 온 존재를 채우고 있는 빛을 받은 사랑의 샘이 밖으로 넘쳐흘렀다.
어디에서나 그는 늘 예수께 사로잡혀 있었다.
마음에 예수를 품고 있었고,
입에도 예수,
귀에도 예수,
눈에도 예수,
손에도 예수,
나머지 다른 지체도 늘 예수를 모시고 다녔다.

예수님과 성 프란시스는 온화함의 완전한 모델이다. 예수님은 온화함이 화해를시키고 치유를 한다고 가르치신다. 성 프란시스는 온화함이 근본적이며 긍정적이고 거룩한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연다고 가르치신다.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프란시스의 발자취를 따른다. 우리가 이렇게 하며 회칙을 살면 우리는 겸손에 뿌리를 둔 온화함으로 살게된다.

우리는 또 온화함의 모델로 성령을 본다. 프란시스 교황은, 2017년 로마의 한 교회를 방문했을때, “성령의 언어는 감미로워서 성교회는 성령을 ‘영혼의 감미로운 손님’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성령이 감미로운 우리에게 그 감미로움을 전해주고 존중을 해주기 때문이다. 성령은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도록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셨다.

온화하고 겸손하게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한 다음 이해 받기를 추구할 때 우리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주님의 선물로 볼 수 있게 된다. 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는 프란시스 성인의 마음을 가득채웠던 것과 같은 빛나는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연다.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예수님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손이 일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재속프란치스칸 회칙 13조: 성부께서 수많은 형제들의 맏이이신 성자의 모습을 각 사람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회원도 모든 사람을 주님의 선물이자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겸손하게 인간답게 받아들일 것이다. 회원은 형제애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며, 또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회원은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형제회나, 기도 파트너와의 나눔, 개인 저널쓰기를 위한 질문

잠언 15:1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불쾌한 말은 화를 돋운다.

- + 다른 의견이나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이 취하는 태도나 행동을 생각해 보시오. 그 태도는 온화한 태도입니까 아니면 분노에 찬 태도입니까?
- + 당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안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습니까?
- + 다른 사람에게 온화하게 대응하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 보시오. 어떻게 달리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화해의 기회가 있습니까?